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의 필요성: 유럽캠페인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Analysis of European campaign on smoking and blindness for EU's effective tobacco control

이성규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박사과정

1. 서론

흡연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동맥경화와 같은 중증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 지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이러한 정보가 각종 금연교육자료나 프로그램에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해 사용 중인 담뱃갑 경고이미지에도 이들 질환의 이미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혐오스러운 질환이미지를 통해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기 질환과는 달리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에 노인성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isease: 이후부터 AMD로 표기함)을 포함시키고 있고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및 금연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금연시도자와 금연상담전화 이용량이 증가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AMD Alliance International¹⁾과 영국 RNIB²⁾는 2005년 9월부터 EU(European Union: EU) 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 캠페인(European Campaign on Smoking and Blindness)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은 EU 의회(EU Parliament)와 EU 위원회(EU

1) AMD Alliance International: 세계 22개 실명관련 단체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주로 AMD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더불어 AMD의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Blind People): 영국 내 2백만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로 European Blind Union(유럽실명연합)의 회원단체이고 영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실명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Commission)의 지지를 얻어 EU의 통합적 금연 정책³⁾에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흡연과 AMD의 상관관계에 관한 단면연구 및 추적연구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교육유무가 금연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됐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이들 국가에서는 흡연이 실명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해 흡연과 실명에 관한 해외연구보고서가 기사화 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AMD환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과 AMD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 역시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EU의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한 AMD Alliance International과 RNIB의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 유럽캠페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연구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흡연과 실명의 상관관계

1) 노인성황반변성(AMD)

실명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당뇨망막병증, AMD, 백내장, 녹내장 등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EU 내에서는 55세 이후 발생하는 실명의 주요원인 중 AMD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⁴⁾, 우리나라의 경우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실명 중 AMD로 인한 실명이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AMD는 독서나 운전과 같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황반(망막 중심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황반에 출혈, 부종 등이 생기면서 시력에 손상을 초래해 결국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다.⁶⁾ AMD 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연령, 가족력, 그리고 흡연유무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⁷⁾ 최근에 이

3) EU 금연정책: EU 회원국들은 EU 의회를 통해 통합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음. 공동 금연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F1자동차경주대회의 담배회사 후원금지를 꼽을 수 있고, 이 뿐 아니라 국경 인근 지역의 담배거래 금지, 담배광고규제, 회원국 내 금연프로그램 지원, 담뱃갑 경고문구 및 이미지에 관한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모든 EU 내 회원국들은 담뱃갑 경고문구 및 이미지를 EU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만 사용이 가능함.

4) RNIB website. (Available at <http://www.rnib.org.uk/eyehealth/eyeconditions/conditionsac/Pages/amd.aspx> assessed 25 October 2010)

5) 권대익.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5년새 3배... "담배 끊어야". 한국일보. 2010년 10월 6일

6) CPME. European Campaign on Smoking and Blindness. June 2005

7) Smith W, Assink J, Klein R, et al. Risk factors fo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ooled findings from three continents. *Ophthalmology* 2001;108:679~704

외에도 영향상태, 비만 등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⁸⁾. 요인별 AMD 발병률을 살펴보면, 연령의 영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55세에서 64세 사이에 AMD 발병률이 12.2% 증가하고, 7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30%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약 7배 이상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흡연유무, 흡연기간 등에 따라서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⁹⁾

AMD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그 외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지만 일단 발병하면 치료를 한다 해도 손상된 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예방을 통해 발생 위험인자들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력과 연령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럼 AMD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흡연하지 않거나 흡연자는 서둘러 금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AMD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안과전문병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당병원을 내원한 60세 이상 환자를 조사한 결과 당뇨망막병증 환자(12,917명) 다음으로 AMD환자(6,527명)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AMD환자의 증가 속도는 지난 2005년(1,952명)과 비교해 2009년에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¹¹⁾

2) 흡연과 AMD 연구결과

2005년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n=4,000, 75세 이상)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AMD 발병률이 2배 높게 나타났고¹²⁾, 2001년 영국(유럽), 미국, 호주의 AMD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와 2004년 실시된 영국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의 AMD 발병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3~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¹³⁾. 2005년에 실시한 흡연과 AMD에 관한 17개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흡연과 실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⁴⁾ 이 연구들 이전에 1996년

8) RNIB website. (Available at <http://www.rnib.org.uk/eyehealth/eyeconditions/conditionsac/Pages/amd.aspx> assessed 25 October 2010)

9) CPME. European Campaign on Smoking and Blindness. June 2005

10) CPME. European Campaign on Smoking and Blindness. June 2005

11) 권대익.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5년새 3배... "담배 끊어야". 한국일보. 2010년 10월 6일

12) Evans JR, Fletcher AE and Wormald RPL. 28,000 cases of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causing visual loss in people aged 75 years and above in the United Kingdom may be attributable to smoking.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2005;89:550~553

13) Smith W, Assink J, Klein R, et al. Risk factors fo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Pooled findings from three continents. *Ophthalmology* 2001;108:679~704

14) Thornton J, Edwards R, Mitchell P, et al. Smoking an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 review of association. *Eye*. 7 September 2005

JAMA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흡연과 AMD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흡연량과 AMD 발병률 간에도 연관이 있어서 흡연자가 20년 동안 금연을 하면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AMD 발병률이 감소한다고 밝혔다.¹⁵⁾ 연구에 따라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AMD에 노출될 확률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흡연이 AMD의 원인이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3.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 유럽캠페인

흡연과 AMD 간의 관련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AMD Alliance International과 RNIB는 2005년 9월 EU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캠페인 “European Campaign on Smoking and Blindness”를 진행하게 됐다. 두 기관은 이 캠페인을 통해 EU의 통합적 금연정책에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EU 전체 회원국이 흡연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 관심을 가지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더불어 EU법 상 규정하고 있는 담뱃갑 경고이미지 및 문구에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EU 회원국은 EU 의회가 정한 금연관련법규와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캠페인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EU

회원국 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 유럽캠페인은 AMD Alliance International과 영국의 RNIB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AMD Alliance International에 소속된 전세계(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22개 단체 중 EU에 속한 10개의 단체가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MD Alliance International의 22개 회원단체 중 EU 회원국 내 10개 단체

- The European Federation of Older Persons (Austria)
- The Belgian Fed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 The German Ophthalmology Society(DOG), the Association of German Ophthalmologists and Pro-Retina Germany
- The Finnish Feder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 Retina France
- Fighting Blindness Ireland,
- The Italian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and Società Italiana Retina
- The Macula Degeneratie Vereniging, Netherlands
- ONCE and the Spanish Vitreous and Retina Society, Spain
- The RNIB, the Macular Disease Society, Age Concern England, Fight for Sight and the Wales Council for the Blind in the UK

15) Seddon JM, Willett WC, Speizer FE, et al. A prospective study of cigarette smoking an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in women. KAMA 1996;276:1141~1146

이들 단체 뿐 아니라 캠페인을 지원하는 곳은 European Disability Forum(유럽장애포럼)의 회원단체인 European Blind Union(유럽실명연합)으로 EU 내에서 실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그리고 영국의 Royal College of Ophthalmologists(RCU)는 영국 내 안과전문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곳을 통해 흡연과 실명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 외 영국 내 최대 민간금연단체인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와 EU 내 의사단체 등도 효율적인 유럽캠페인 진행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EU 의회와 EU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고 두 번째는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 회원국 전체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인식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선 EU 의회와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5년 캠페인이 시작될 당시 영국의 실명관련 직간접 비용이 2004년까지 약 49억 파운드(약 10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득근거로 활용했다.¹⁶⁾ 예방이 가능한 실명 마저 관리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실명관련 소요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을 연구 등을 통해

증명했고, 이러한 사실이 유럽 의회와 위원회로 하여금 흡연과 실명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즉 실명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EU 전체 경제에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또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이 금연정책에 어떠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효과를 홍보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서 몇몇 국가에서 선행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도 향상이 흡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인용된 연구들은 호주의 사례들이다. 호주의 경우 이미 흡연이 실명을 초래한다는 메시지를 담뱃값 경고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흡연자들에게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를 교육 한 후 이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금연의사를 밝히는 흡연자 수가 증가했고, 흡연이 실명을 초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금연상담전화를 홍보한 TV금연광고를 시청한 후에는 상담전화(Quitline)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결과도 확인했다.^{17) 18)} 영국에서 실시된 연구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를 금연교육을 통해 인식하게 된 흡연자 중

16) Winyard S. The cost of sight loss in the UK. London, RNIB, 2004

17) Wilson N, Hodgen E, Mills J, et al. Journal article on smoking and blindness prompts significantly more calls to the Quitline. N Z Med J 2002;115:199~200

18) Wilson N. The impact of television advertising campaigns on calls to the New Zealand Quitline. Wellington, The Quit Group, 2004

41%가 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8%는 흡연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24세에서 3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흡연과 실명에 관한 교육 후 81%가 금연하거나 흡연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¹⁹⁾ 영국 10대 흡연자(16~18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는 여러 질환 중 청소년은 폐암이나 심혈관질환, 심장질환 보다 실명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고, 흡연이 실명을 초래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영국 10대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시도율과 성공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²⁰⁾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캠페인은 구체적인 인식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EU 전체 회원국의 인식 향상을 위한 최적의 홍보방법으로 EU 금연캠페인 “HELP—for a life without tobacco”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Help 캠페인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까지 15세에서 18세의 10대 청소년과 30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홍보를 위한 대규모 EU 통합 금연캠페인으로 진행됐고, 이후 2009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시작으로 2차 캠페인에 해당하는 “Help 2.0”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 유럽캠페인은 이들 EU 차원의 통합적 금연활동에 초점을 맞추

고 단기간에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인 Help 웹사이트를²¹⁾ 활용했다. 동영상, 게임, 상담 등을 통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이와 더불어 “Help 2.0” 유럽 금연캠페인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EU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TV금연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Help 캠페인을 통해 제작된 금연영상광고는 29개국 수십 개의 TV 채널을 통해 유럽 각지로 송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 수단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그 외 온라인과 각종 대규모 이벤트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의 최후단계로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캠페인 과제는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를 EU법 상 규정하고 있는 담뱃갑 경고 이미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고 이미지 대신 경고 문구를 사용하는 EU 내 회원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Smoking can Kill” 등과 함께 “Smoking causes blindness”를 추가하는 것이다.

다각적인 캠페인 활동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EU 의회에서 흡연과 실명에 관한 경고이미지와 문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19) AMD Alliance International (2005) Country Report UK on awareness of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nd associated risk factors.

20) Moradi P, Thornton J, Edwards R, et al. Teenagers' perceptions of blindness related to smoking: a novel message to a vulnerable group.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 2007;91:605~607

21) EU Help available at <http://uk-en.help-eu.com/pages/index-2.html>

EU법 상의 담뱃갑 경고이미지와 문구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2010년까지 담뱃갑의 경고이미지 및 문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 역시 새로운 경고이미지 및 문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결론: 국내 적용방안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무엇보다 해당정보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선진적인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몇몇 국가와 EU에서는 흡연과 실명에 관한 메시지를 금연정책에 다각도로 적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많은 실명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고, 더불어 이들의 활동에는 과학적인 연구자료가 뒷받침 되어 왔다. 결국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정책도입 이전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국내에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금연정책 과제일 것이다. 과제의 중요성은 앞서 언급한 흡연과 AMD에 관한 선행연구들, 그리고 인식도 향상을 통해 금연시도자 및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의 증가를 이끌어낸 해외사례를 통해 충분히 강조되었을 것이다. 이제 AMD Alliance International과 RNIB의 유럽 캠페인을 근거로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금연프로그램 및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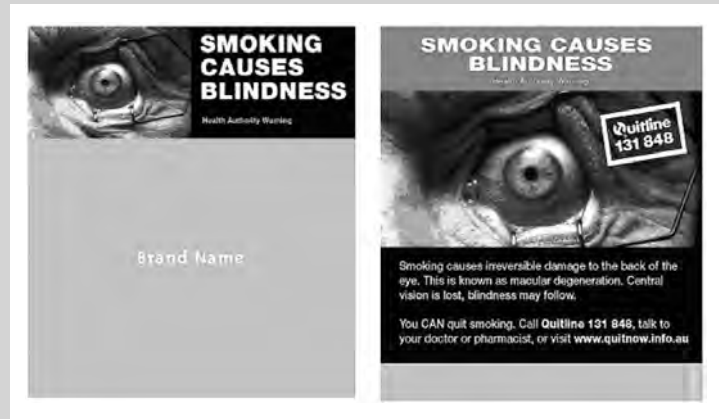
첫째, 무엇보다 국내 AMD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흡연과 AMD 간의 관련성 연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해당국

그림 1. AMD Alliance International과 RNIB 유럽캠페인의 흡연과 실명에 관한 가상 담뱃갑 경고문구



Source: RNIB website. (Available at <http://www.rnib.org.uk/eyehealth/eyeconditions/conditionsac/Pages/amd.aspx> assessed 25 October 2010)

그림 2. 흡연과 실명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호주 담뭏갑 경고이미지



Source: Australian government's 'Every cigarette is doing you damage' website (Available at <http://www.health.gov.au/internet/quitnow/publishing.nsf/Content/warnings-b-eye> assessed 25 October 2010)

가 AMD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인 만큼 국내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흡연자의 비흡연자 대비 AMD 발병률은 2배정도지만 연구에 따라 이보다 높은 3배 혹은 4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연구대상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연구가 아닌 해외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의 국내 적용 필요성 강조는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결과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경우 사회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고, 특히 실명관련단체 혹은 금연관련단체들의 흡연과 실명에 관한 각종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국내 AMD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흡연과 AMD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보도를 접하는 흡연자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 이야기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가 사회적 이슈화 단계를 거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얼마나 많은 흡연자들이 자신의 흡연 습관으로 인해 남은 인생 동안 시력장애를 가지고 살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을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얼마나 흡연과 실명에 관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흡연이 실명을 초래한다는 교육을 제공한 후 얼마나 많은 흡연자 혹은 흡연 청소년들이 금연을 시도하는지에 대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의 실질적인 효과 분석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AMD Alliance International과 RNIB의 유럽캠페인에서 실시한 인식 향상 전략처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

둘째, 흡연과 실명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더불어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하는 것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도 조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언론을 통해 발표된 흡연과 실명에 관한 기사들은 모두 해외기사를 번역

한 금연캠페인과 매체들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고 모든 흡연자들이 실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흡연과 실명의 메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는 2000년 초반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5년 당시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흡연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흡연을 감소와 청소년 흡연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경우는 흡연이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었지만 대국민 홍보프로그램의 부족으로 2006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인식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만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홍보방법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유럽캠페인에서 본 것과 같이 실명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AMD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실

명이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실명을 유발하는 원인 중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AMD Alliance International의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있는 영국 간호사 Paul M Edwards(50세)의 경험담을 통해 흡연과 실명에 관한 인식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담배**

“저는 하루 60개피까지도 담배를 쫓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습성AMD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한 쪽 눈의 시력을 점점 잃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울 때는 아마도 폐암에 걸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더욱 그와 같은 질환에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흡연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흡연 때문에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다면 저는 분명히 담배를 끊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바로 담배를 끊었을 것입니다.”